

周边勢力調査研究－經濟

# 共產諸國 經濟体制의 變遷過程研究

보관용  
(관리과) 44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調査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勢力調査研究

# 共產諸國 經濟体制의 變遷 過程 研究

研究執筆責任

李 承 潤

(略歷) 美國 위스킨신 大學院(經濟學博士)(1960)  
延世大, 서울大,西江大學校 教授歷任(1961~1976)  
國會議員(1976~現在)

刊行責任

南 炫 旭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第1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	3
第2章 經濟改革의 動機와 社會主義 經濟計劃의 諸類型 .....	7
第3章 經濟改革의 內容과 問題點 .....	19
第4章 東·西貿易의 擴大와 兩體制의 接近可能性 展望 .....	41

## 第1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本研究報告書는 国土統一院의 위촉에 의하여 蘇聯 및 東歐圈諸國의 經濟改革過程을 研究하기 위하여 試圖하였다.

周知하는 바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諸國은 이미 지난 1960年代에 들어 오면서 多様な 變化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即, 1960年代에 들어와서 「후르시초프」(Khrushcher)는 共產陣營內 部에 對해서 社會主義의 多樣性, 指導體制에 있어서는 集團指導制, 그리고 對西方關係에 있어서는 競爭的 共存을 宣言하였다. 數次에 걸친 5個年計劃에 의한 國內建設과 衛星國의 叛變, 其他 國內的인 諸要因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스탈린」時代의 社會主義帝國의 概念은 「후르시초프」 時代에 들어와서 大幅 完化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蘇聯의 第20次 共產黨大會以來 東歐衛星國에 對하여 「社會主義에의 民族路線」(National Road to Socialism), 「社會主義의 多樣性」(Diversity of Socialism)을 是認함으로써, 外交와 軍事問題에 있어 蘇聯과의 行動統一을 기하는 外에 國內問題에 對한 民族共產黨의 自律性을 許用하는 方向을 取하게 되었다.

따라서 東歐의 政變以後 共產陣營內 部에 있어서는 「스탈린」時代의 統制代身에 圈內協調를 바탕으로 하여 共產圈諸國間에 不均衡的인 經濟發展을 지양하고 同時的인 社會主義建設과 均等한 經濟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적어도 勢力膨脹이라는 蘇聯의 政治的 目標의 次元에서 본다면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的 競爭에서 그 優越



성을 立証코저 하는 對自由陳營 經濟攻勢의 일환이 아닐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一國家社會主義段階로 移行시키고자 하는 그들  
에 있어 蘇聯自體의 資源의 不足을 補完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共產圈內部에 對해서는 同時的인 共產主義建設을 名目으로  
하여 對自由 陳營에 對하여서는 經濟的 競爭을 展開하여 美國을  
능가하는 戰略目標의 達成을 위해 「코메콘」(Comecon)을 中心으  
로 하여 國際分業의 原理下에 共同市場을 建設하기 위한 努力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東歐諸國의 自由化 氣風과 經濟制度의 改革은 이  
같은 蘇聯의 國內的인 自由化에 對한 大衆의 要請과 無關할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經濟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蘇聯에 있어 自由經濟論이 抬頭  
하게 된것은 決코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마렌코프」 時代에 始作하였는데 戰後 「스탈린」의 後繼者로서  
1954年 1月, 그는 이미 蘇聯의 經濟가 크게 發展하였음으로 重  
工業優先政策을 더이상 持續할 必要가 없어졌다고 論한 바 있다.

그後 「후르시초프」도 漸次, 消費財工業을 重要視하게 되었으나  
이같은 消費財工業의 重要性이 顯著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브래  
즈네프」-「코시긴」路線에 起因한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論爭은 經濟計劃에 伸縮性을 導入하는  
問題인데, 卽 「스탈린」時代의 計劃經濟가 過度한中央集權的 計劃經  
濟였음으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그것이 도리어 能率을 低下시킨

다는 問題點을 認識하고, 「스탈린」式 計劃經濟를 經濟發展에 적용하도록 보다 合理化시킨 必要性을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스탈린」式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어느程度 地方分權化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받아 드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背景下에서 1962年에 「Insey Liberman」이 個個의 企業의 利潤率에 依하여 企業의 実績을 評價하고 또한 이같은 実績을 基準으로 하여 物的 報償基金을 積立시켜서 經營의 能率을 提高시키는 提案을 하였다.

「Liberman」은 表面上 自由市場을 認定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思想은 상당히 資本主義와 共通的인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Liberman」의 思想에 對하여 「이데오로기」的으로 批判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마침내 「코시긴」은 1965年 1月 現在 實施하고 있는 新經濟制度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東歐諸國에 있어서도 1960年代로 접어들면서 經濟理論, 經濟計劃 및 管理体系가 公公然히 挑戰을 받게 되었는데, 이같은 挑戰의 原因은 傳統的인 經濟運營方式이 有效性을 發揮할수 없다는 認識이 漸次 깊어졌으며, 莫大한 投資가 그에 相應하는 經濟的 效果를 가져 오지 못할 뿐 아니라, 經濟發展의 初期 段階에서 考案된 計劃 및 運營方式이, 2次世界大戰以後 10여년간 계속 資本財爲主의 高度成長指向政策으로 因하여 大部分의 東歐諸國이 이미 初期의 均貧狀態를 벗어나 工業化의 段階가 深化되자 生産品의 在庫가 增大되고 需要와 供給의 차질을 招來하여 그들 計劃經

濟에 커다란 問題點을 노출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에서 나타난 重要的 缺陷은 國際貿易 部門에서 非能率을 招來하게 되었는데, 經濟規模의 擴大로 因한 國際分業의 必要性은 東歐諸國이 對西方貿易을 擴大하려고 하여도 生産財貨의 品質이라든가 市場機構等, 西方諸國과 競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對外貿易을 擴大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傳統的인 貿易制度에 對한 再檢討가 必要하였고, 따라서 廣範圍한 經濟改革을 促進하는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는 現在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國,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等 6個國에 걸쳐 우선 첫째로 共產圈諸國이 經濟制度의 大幅的 改革을 斷行하게된 動機(Motivation)를 檢討하고, 둘째로는 經濟的 改革의 內容과 限界를 分析하는데 力點을 두었으며, 셋째로 東·西 兩經濟體制의 接近可能性에 對한 分析을 하는 것으로 研究의 範圍을 限定시켰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東歐諸國의 새로운 經濟計劃이나 Comecon 國家全體의 綜合計劃에서 보면 東歐諸國은 對外貿易 特히 東-西間의 交易關係의 增進을 그들의 經濟成長을 보다 促進시킬수 있는 가장 主要한 要因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1972年 蘇聯共産黨 第25次大會에서 「코시긴」首相은 「輸出市場을 더욱 開拓해야 하며 輸入은 國家經濟計劃을 達成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인 經濟戰略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蘇聯의 경우 9次5個年計劃(1971-75年)은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促進시키고 生産手段의 質的 向上과 勞動生産性的 向上을 위하여 經營과 經濟組織의 改革 및 철저한 合理化를 強調한 24次 黨大會 提示事項에 따라 樹立된 것이었다.

以上과 같은 상황에서 볼때 蘇聯과 東歐諸國은 集約的인 國內成長을 指向함에도 不拘하고 今後 東·西間의 經濟協力은 不可避하게 強化될 것이 予測되고 있으며, 75年度와 같은 大幅的인 經濟成長率을 다시 記錄할수는 없겠으나 보다 東·西協력이 活潑해지면 高度成長의 機會는 계속 到來될 것이 予想된다. 더욱이 75年度의 경우 東歐諸國의 對外經濟關係는 그範圍가 顯著하게 增大되었으며 幅과 深度에 있어서도 커다란 成果를 건우었다. 「스타비노크」(Stavinok) 教授의 見解에 依하면 東·西交易의 潛在的인 發展可能性을 充分히 利用하기 위하여서는 Comecon 國家들의 生産構造가 高度化되고 對外貿易의 地域構造가 特殊市場을 目標로 하도록 貿易과 生産構造가 根本的으로 改善되어져야 한다고 前提하고 있다.

## 第2章 經濟改革的 動機와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類型

### 가. 經濟改革的 動機

오늘날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국은 經濟發展과 技術의 向上,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經濟体制의 質的인 改革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特히 生活水準의 向上과 對西方關係의 擴大를 바라는 壓力이 여러 側面에서 이같은 經濟改革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다.

即, 各國의 國內條件에 따라 相異한 점은 있으나 1960年代에 들어 와서 東歐諸국은 1950年代까지 社會主義 經濟의 「모델」로 認定되어 왔던 蘇聯型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缺陷에 對한 批判이 일어 나기 始作하였다. 國別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東歐諸국은 '60年代에 들어와 모두가 經濟改革을 겪었고, 또한 이같은 事實은 分權化를 指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 東歐諸국에서 나타나기 始作한 經濟改革은 企業의 自律性이 顯著히 增加하고, 市場經濟와 計劃經濟가 共存하는 一種의 分權的 經濟體系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企業의 自律性을 增大시키고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共存하는 分權的 經濟體制가 抬頭하게 된 要因은 2次世界大戰以後 東歐諸국은 蘇聯式 中央集權的 計劃經濟下에서 外近的 成長方式을 推進해왔고, 그結果 1950年代에는 대체로 戰後의 經濟復興과 그들 社會主義工業化를 일단 마무리 짓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後 1960年代에 들어 와서 東欧諸국이 直面한 經濟的 課題는 우선 무엇보다도 勞動, 資本 등의 量的 增大에 基礎하는 外延的 成長에 不可避하게 抬頭하는 資源의 浪費를 방지하고, 生産方法과 生産物의 質的 改善, 그리고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基礎를 둔 集約的 成長을 重視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年代에 들어 와서 東欧諸국이 直面한 問題點은, 첫째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下의 外延的 成長에서 不可避하게 抬頭한 資源配分の 非能率과 둘째, 消費生活水準의 向上과 多樣化에 對한 國民의 慾求를 充足시키는 問題, 끝으로 東.西貿易의 急速한 增大를 要求하는 經濟的 必要性에 對應하는 것으로 集約된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經濟制度改革의 一般的 目標는 比較的 높은 水準에 到達한 共產主義經濟의 效率性을 增加하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의 內容역시 東欧各國에 共通的인 點이 많다.

#### 1) 經濟計劃에 伸縮性 導入

經濟計劃은 보다 伸縮的이고 物量基準보다 價值基準으로 廣範圍한 目標額을 밝히는 同時에 短期的 計劃보다는 長期的 計劃에 比重하게 되었고, (1) 計劃當局과 下部生産單位와의 關係가 보다 緊密化된 것이 特徵이다.

---

註1) J. Wilcz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d Unwin, LTD., 1970, Chap.I.

이제껏 蘇聯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生産手段의 国有化와 더불어 肥大한 階層的 管理機構에 基礎하여 왔다. 따라서 經濟計劃에 關한 責任을 지고 있는 中央計劃當局이 國家資源의 大部分에 關한 処分權을 가지고 있으며, 資源配分の 窮極的인 決定權은 共產党中央委員會에 있다. 왜냐하면 共產党中央委員會에서 決定된 指針에 따라 各省 「고스프랜」을 通하여 詳細한 國民經濟의 計劃이 作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決定되는 經濟計劃은 生産, 分配, 消費, 貨金, 價格等 經濟의 모든 部門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巨視的 側面뿐만 아니라 企業이나 協同農場等 微視的 側面に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는데 이같은 協同農場이나 個個企業에 주어지는 計劃은 中央計劃委員會의 指令的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法的 義務가 수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蘇聯의 經濟計劃의 巨視的 部門으로 부터 微視的 部門에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는 結果, 蘇聯의 計劃當局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價格機能의 役割을 直接 担当하게 되었기 때문에 經濟各部門의 相互關係를 計劃化하는 것은 極히 複雜한 作業이 었기 때문에 이같은 內部的 矛盾을 解決하기 위하여 制度의 改革을 끊임 없이 試圖하여 왔는데, 特히 「스탈린」死後 國民經濟의 運營, 管理에 關한 여러가지 缺陷으로 부터 脫出하기 위한 試圖가 行하여 졌다.

即, 「스탈린」式 計劃, 管理의 缺陷은 資源配分에 있어 過度한 中央集權的 統制, 官僚主義的 非能率等으로 集約되기 때문에 「고스



프랜]自体도 1955年以後 부터는 長期計劃과 短期計劃만을 專担하게 되었다. 이같은 現象은 當時 蘇聯經濟에 나타난 部分的 不均衡이 主로 短期的인 것이 아니라 長期的인 側面에서 解決되어야만 한다는 새로운 認識에 근거한 것이다.

## 2) 企業의 獨立性和 管理制度의 改革

生産企業이나 商業單位는 計劃値의 達成을 위하여 보다 自律적으로 되었다.

따라서 經濟關係에 있어서 上下階級關係는 보다 緩和되고 契約에 立脚한 橫的 關係가 漸次 增大하였다.

東獨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1963年 「新經濟計劃과 經營體系를 위한 指針」이 發表됨으로서 始作되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價格決定權을 中央當局에 留保시킨다는 條件으로 生産計劃에 關한 主要決定權을 各工業「트러스트」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各工業「트러스트」는 價格決定權을 除外하고는 實質적으로 獨立된 經濟單位가 되며 中央當局으로 부터 最少限의 指標만을 받아 그範圍 안에서 산하의 各企業에 對하여 生産課題를 設定해 주는 權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東獨의 경우, 經濟改革의 特徵은 價格決定權을 中央當局이 留保하고 있는 點과 經濟單位의 自立性이 工業「트러스트」의 水準에서 멈추고 企業水準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點等을 들 수 있다.



### 3) 利潤制度和 勞動에 對한 物質的 誘因

過去에 많았던 企業에 對한 行政命令이 減少하고, 漸次 利潤率의 企業活動에 標準으로 認定받게 되었다. 또한 道義的이고 思想的인 誘因보다는 物質的 誘因을 勞動에 對하여 供與하는 것이 漸次 많아 졌으며 企業利潤의 一部는 경우에 따라 勞動者 個人에게 分配되거나 或은, 集團的으로 分配되는 경우가 많아 졌고, 分配의 基準이 勞動의 能率이 되는 것은 勿論이다.

### 4) 價格體系에 對한 改革

生産價格을 可及的 生産量과 接近시켜서 國家의 補助金支拂의 必要性을 減少시키며 보통의 企業으로 하여금 利潤을 남기게 하는 改革이 이루어졌다. 同時에 協同農場에 對하여 支拂하는 購買價格은 工產品價格에 比하여 上昇시킴으로서 農業生産을 刺戟시키고, 農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려는 努力이 보여지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는 많은 價格을 市場의 需要와 供給에 依하여 自由로히 決定되도록 改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의 「新經濟모델」은 改革派의 領袖이며 「두부체크」 政權에서 副首相을 歷任한 「오타. 시크」(Ota Sik)가 中心이 되어 作成한 것으로 數量指標의 廢止, 市場價格의 채용등을 通하여 企業의 獨立성과 市場關係의 導入을 大幅的으로 認定한 點에서 相當히 急進的인 現象이라 할수 있으나 1968年

8月, 「와르샤와」 條約軍의 「체코」 侵攻으로 保守派가 登場함에 따라 모든 經濟改革은 일단 停滯狀態에 빠졌으나 近來에 와서 이 같은 經濟改革의 必要性에 關한 論議가 다시 抬頭하고 있는 實情이다.

#### 5) 東. 西貿易의 擴大

從來 共產國家의 貿易은 國家의 貿易省이나, 貿易商社에 依하여 独占되고 있었는데, 現在는 이 같은 独占度가 크게 緩和되어 他省 및 下部企業에 貿易의 機能이 移管되어 效率性을 導入하도록 勞力하고 있다.

1954年度에 創設한 「코메콘」(Comecon)의 主要目標은 東歐圈內의 域內分業을 促進시킴으로서 域內貿易을 擴大하고 그結果 西方側으로 부터의 經濟的 獨立을 確固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Comecon에 加入하지 못한 「유고스라비아」는 勿論 거기에 加入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等도 西方先進國과의 貿易 擴大에 깊은 關心을 갖어 왔다. 對西方貿易의 擴大는 Comecon 域內 分業에 만 依存하는 것 보다 資源을 훨씬 節約할수 있고, 規模의 利益을 可能하게 할뿐 아니라 技術進歩를 加速시켜 그들 經濟發展에 크게 寄与하리라고 生覺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歐諸國의 計劃經濟는 對外貿易擴大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서, 雙務的 貿易構造, 國內價格構造의 不合理性, 恣意的 換率構造等의 制度的 障害와 適切한 輸出商品의 不足, 品質과 「서비스」面에

서의 對西方競爭力 不足等の 여러가지 問題點은, 東歐諸國의 對西方 貿易擴大를 크게 가로 막는 要因이 되었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그 들 貿易利度에 對한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였고 나아가서 經濟改革의 必要性까지 提起시킨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 나. 計劃經濟의 諸類型

本章에 서는 主로 蘇聯과 東歐諸國間의 특수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東歐諸國이 '60年代에 들어 와서 그들 經濟體制의 大幅的인 改革을 斷行하지 않을수 없었던 여러가지 「動機」(Motivation)에 對해서 檢討한 바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1950年代 中半期까지만 하더라도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國家들은 高度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1年 以後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大幅的인 經濟改革이 이루어 졌고, 1956年, 蘇聯의 第20次 共產黨大會에서는 「社會主義에 對한 獨自路線」이 公式的으로 認定되게 되었으며, 그 後 各國에서는 多樣한 經濟制度의 改革이 이루어 졌다.

東歐諸國中 最初로 이같은 經濟改革에 關한 決定을 내린 것은 東獨이었으나, 그것이 本格化된 것은 어디까지나 蘇聯이 1965年 9月, 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 經濟改革에 關한 決定을 採択한 以後부터다. 그 後 東歐圈各國의 共產黨이 經濟改革에 關한 決定을 내린 것은 「체코슬로바키아」가 1965年 1月, 「헝가리」가 '66年 5月, 「루마니아」가 '67年 12月이었고, 「폴란드」는 1956-'58年

의 分權化實驗이 失敗한 以後 1971年 11月의 党大会以後, 「기에 레크」 新政權에 依하여 經濟改革에 関한 構想이 始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制度改革의 一般的 目標은 比較的 높은 水準에 到達한 共產主義經濟의 效率性を 增加시키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東歐共產主義諸국이 지난 '50年代 後半에 와서 이룩한 그들의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으로 부터 漸次, 生産方法의 改善을 中心으로 資源의 보다 效率的 配分을 도모하기 위한 「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을 重要視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국의 經濟体制의 改革과 自由化의 정도는 國家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經濟改革의 정도는 東歐諸국에 있어 대략 다음과 같은 順序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即, 自由化의 정도는 「유고스라비아」가 首位이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蘇聯, 「루마니아」, 「알바니아」의 順序를 들수 있다. 勿論 이와 같은 經濟改革은 아직도 西方自由經濟体制에 比하면 매우 硬直的인 것이고 共產諸국의 經濟計劃当局도 이와 같은 改革이 지나치게 비약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限界를 嚴格히 設定하여 놓고 있음을 볼수 있다. 왜냐하면 經濟改革은 어디까지나 經濟改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必然的으로 「이데오로기」 및 政治的 社会的 諸問題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体制上的 變遷으로 말미암아 蘇聯

을 비롯한 共産國家들의 經濟計劃體制는 經濟의 管理組織 및 이에  
淵源하는 資源의 分配의 側面에서 대략 다음 四大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註 2 )

1) 中央集權的 行政管理體制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이 制度는 計劃과 管理面에서 中央當局이 모든 것을 管掌하고  
下部機關은 執行面에서 何等의 裁量權이 없으며, 모든 生産指標는  
物量單位로 行하여 진다.

2) 計量計劃型 管理制度 (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이 制度는 行政命令에 依한 計劃의 樹立이나 執行代身に 數理的  
手法에 입각한 計劃의 樹立을 圖謀하고 또한 價格도 이들 數理模  
型의 聯合으로 設定이 된다. 이 制度下에서는 生産單位에 對한 生  
産活動과 價格面에 있어서 相當한 程度의 裁量權이 賦與된다. 價  
格의 流動性을 相當히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資源의 最適配分도  
達成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 制度가 現實化段  
階에 온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能力이 아직도 이러  
한 最適計劃을 遂行할 만큼 發達되어 있지 못할뿐 아니라 專門的  
技術者가 不足한 것도 問題點의 하나이다.

---

註 2 ) J. Wilezn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p.23

### 3) 制限的 中央集權制度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中央機關이나 行政機構等은 存在하지만 어느 정도의 責任과 權限이 下部機關에 위임되어 있다. 中央政府의 行政命令의 數는 相當히 制限되어 있으며, 收益性이 企業의 成果를 判斷하는 指標로 使用되고 있으며 價格은 中央政府에 依하여 操作되기는 하나 生産原價에 準하여 策定된다. 이 體制는 비록 制限된 範圍이긴 하나 企業의 「이니셔티브」나 消費者主權을 옹호하려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나 價格決定過程에서 여전히 獨斷的인 要因이 殘存하고 있으며 資源의 配分 또한 稀少性選好라는 가장 效率的 基準에 依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現在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大部分의 東歐共產國家들은 이 같은 模型을 원용하는 傾向이 漸次 強해지고 있다.

### 4) 市場補完型 (Supplemental Market Model)

經濟行爲는 市場機能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原則적으로 價格은 需要와 供給의 條件에 依하여 決定되나 長期的이고 巨視的 眼目에서 計劃當局에 依하여 調整된다. 따라서 資本主義制度下에서와 같이 價格機構가 資源의 安配에 決定的인 役割을 擔當하여 經濟計劃은 西歐의 경우와도 같이 經濟의 將來에 對한 大體的인 目標를 提示하는 것으로 局限한다. 要컨데 이 制度下에서의 經濟의 運營은 大體로 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그것과 差異가 없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中央計劃의 機能이 크게 減少된 計劃은 「Ota Sik」

의 表現을 빌리면 「指向計劃」(Orientation Planning)인데 이 計劃下에서는 단지 消費와 投資의 比率, 各部門間的 生産比率과 經濟發展의 先導的 役割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의 育成計劃 등이 이 計劃의 對象이 되고 있다. 例컨데 中央計劃當局의 硬直性和 浪費的 要素가 크게 輕減되어 資源의 效率的 利用 또한 價格에 依해 誘導되게 된다.

오늘날 9個의 東歐圈諸國中 오직 「알바니아」만이 第1類型에 屬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第4類型에는 「유고슬라비아」만을 꼽을 수 있으나 最近에 와서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漸次 第4類型에 接近해 가고 있으며, 여타의 5個國은 대개 第3類型에 屬한 다고 볼수 있는데, 競爭的 市場機能을 擴散, 適用시킴 으로서 價格機構의 資源配分機能을 經濟計劃에 원용하려는 計劃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이 近年의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一般的 動向으로 把握된다.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類型

<p>中央集權的 管理體制型</p>	<p>알바니아</p>
<p>數理計劃型</p>	
<p>制限的 中央集權型</p>	<p>東獨, 루마니아, 불가리아, 蘇聯, 폴란드</p>
<p>市場補完型</p>	<p>유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p>



### 第 3 章 經濟的改革의 內容과 問題點

가. 蘇 聯

#### 1) 總濟改革의 背景

1924年 「레닌」의 死亡以後 「스탈린」이 登場하여 이른바 「一國家社會主義」論이 支配됨에 따라 1925年 12月에 第14次 黨大會를 高비로 하여 蘇聯經濟는 工業化의 時期로 접어 들었다.

따라서 1928 - 33年度의 1次 5個年計劃期間동안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間의 投資配分은 約 6 : 1이었고, 2次 5個年 計劃期間 (1933- '37)에 있어서도 重工業對 輕工業의 投資比重은 約 4 : 1이였다.

이와 같이 投資配分에 있어서 重工業의 편중은 두말할것도 없이 「맑스」의 理論에 起因하는 것인데, 이제껏 9次에 걸친 5個年計劃遂行에 蘇聯은 持續적으로 重工業優先政策에 편중해 왔다. 1970年度 Gross Domestic Product의 産業別 構成比率을 볼것 같으면 農業 22%, 工業 51%이었고, 60年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農業이 20%, 工業이 52%를 보이고 있다.

한편 投資政策은, 그들 社會主義計劃經濟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計劃的인 資原配分에 依하여 이루어 진다. 2次世界大戰以後 '60年代까지의 資本의 蓄積은 西歐諸國에 比하여 總固定資本形式이 1940年부터 1962년에 이르는 사이에 約 3배에 達하고 있다. 1)

註 1)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6.

특히 鈹物, 燃料産業을 爲始하여 鐵鈹工業과 冶金工業部門의 資本의 蓄積度가 높은 것을 볼수 있으나, 反面에 單位當 生産性은 低水準임을 볼수 있다. 우선 工業産出의 年平均 增加率은 1951 - '55年間に 있어서 約 11%로 부터 1956-'61年間에는 9%로, 다시 '62-'65年間に 7%로 低下한 事實을 볼수 있으며, 反面에 雇傭에 對한 資本蓄積은 比較的 착실한 增加를 이루어 왔는데 勞動力의 年間增加率은 2.4%에 比하여 生産的 資産의 年間 純增加率은 約 12%에 達하고 있다.

農業部門은 1950年부터 '70년까지의 生産增加는 約 70%에 達하고 있다. 특히 이期間에 있어 農業의 沈滯는 蘇聯當局이 農業分野를 輕視함으로서 야기된 現象은 아니었고, 農業部門의 年間投入量을 基準으로 하여 볼때, 單位生産物當 總資本增加率은 '50年代와 比較하여 볼때 '60年代에 와서는 顯著的한 增加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특히 지난 '58년부터 '61년까지의 期間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60年代中半期에 와서도 계속 上昇하고 있음은 매우 主要한 事實이다.

따라서 蘇聯當局은 農業部門의 生産性を 增大시키기 위하여 ① 廣範圍한 分野에 걸쳐 生産技術의 改善과 새로운 知識의 應用이 必要로 되고 있으며 ② 勞動力의 教育水準과 技術水準의 向上, ③ 生産管理 및 補償制度의 改善 ④ 個人農場 規模의 擴大 및 農機械條理施設에 置重하여 規模의 適正化를 이루는 改革을 斷行하였다.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1960年代 前半期까지만 하더라도, 東西貿易은

主로 東歐와 西歐間에 原料와 製品의 補完的 交易이 라는 制限된 形態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우르시초프」의 失脚以來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産圈諸國들은 그들의 閉鎖的인 社会主義統制經濟의 非能率을 극복하기 위하여 「Liberman」의 「利潤原理」와 「比較生産費」의 原則에 따라 經濟体制의 自由化와 西方世界와의 交易의 增進을 적극 推進하게 되었다. 아울러 「Comecon」諸國은 1964年初에, 「Comecon」銀行을 創設하여 域内 交易增大와 社会主義諸國間의 多角的인 決裁制度의 確立및 共通 通貨創出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1960-70年間, 10年間の 「Comecon」域内貿易의 年平均 增加率は 8.4%를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蘇聯과 「Comecon」諸國의 西歐諸國과의 交易은 輸出이 年平均 11%, 輸入은 年平均 12%나 增加하여 共産圈諸國의 自由陣營諸國과의 交易構成비가 1955年の 26.5%에서 1970年度에는 38.2%로 增加하였다.

한편 中·蘇分争의 激化와 EC의 抬頭, 그리고 極東에서 日本의 經濟力 拡大等에 刺戟받은 蘇聯은 1969年 1月, 「Comecon」創設 20年 行事에서 「Comecon」의 經濟統合論을 提唱하기에 이르렀으며 「Comecon」域内の 分業体制確立과 原料増産 및 共同事業에 對한 長期借款供給을 위해 「國系投資銀行」을 設立하여 蘇聯의 領導下에 共産圈諸國의 團結을 強化시키고 있다.

## 2) 經濟改革의 內容과 問題點

蘇聯의 經濟体制가 數年內에 根本的으로 變質되어 從來의 中央集

權的 計劃體制에서 地方分權的이며 利潤動機方式에 依存하는 體制로 變質될 것이 予想된다. 蘇聯의 經濟體制는 個人的 創意와 이로 因한 經濟의 革新보다도 國家의 計劃과 指導를 신뢰하는 社會主義 體制이며 지난 半世紀 동안 그같은 신뢰하에서 比較的 높은 成長率과 工業化로 實施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經濟의 成長과 工業의 構造的 심화는 國家의 指導만으로서는 發展을 더以上 持續시킬수 없는 問題에 直面하여 '60年代부터 停滯局面에 접어들기 始作하였다. 即, 社會主義計劃經濟와 官僚指配下의 經營은 이른바 「로르마」라고 하는 生産割當制를 達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惰性を 派生시켰으며, 때문에 生産과 需要와 消費大衆의 厚生과는 無關하게 되는 矛盾을 惹起시켜왔다. 即, 「노르마」를 重量으로 割當하면 製品의 使用價値를 고려함이 없이 製品의 數量으로 채우려 함으로서, 質을 度外視하여 왔다. 따라서 生産된 製品은 滯貨로 쌓일뿐 消費生活에 直接 寄與되지 못하는 경우가 許多하다는 矛盾이 直面하게 되었고 이로 因한 浪費와 非能率은 비단 消費財工業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었다. 生産財工業에 있어서도 새로운 技術開發이 不振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聯關工業에 對한 有機的 供給效果가 期待하기 어렵게 되어 新規投資의 進度도 低下시키는 矛盾을 派生시켰다. 때문에 1950年代 後半 「우르시초프」의 登場과 더불어 「Liberian」의 利潤動機導入論이 提起되었던 것이며, 이는 '65年 「코시킨」首相에 依하여 一部 消費財工業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源泉的으로 社會主義理論의 正統性에 어

국나는 利潤制度의 導入은 그後 심각한 理論紛争을 야기하였으나, 그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共產主義基本理念上的 制約으로 因하여 그 導入이 沮害되었던 利潤動機方式을 蘇聯이 이제 수궁하지 않으면 안될 根本的인 原因은, ①蘇聯經濟의 成長率이 크게 鈍化되고 있으며 ②新規投資完成率이 크게 未達될 뿐 아니라 技術의 開發速度가 不振하여 그들과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生産性を 만회하기 위한 '65年度부터의 企業의 利潤追求方式은 期待했던 대로 生産性を 提高하는데 短期的 效果를 多少 發揮하기도 하였으나 極도로 相反되는 政策의 混用은, 漸次 그破行性を 드러내어, 지난 1969年度の 蘇聯經濟는 '65年以來 最惡의 1年을 記錄하게 되었고 그結果 計劃經濟에 對한 根本的인 會議를 蘇聯支配層에 안겨 주었다.

왜냐하면 經濟에 「利潤導入」으로 發展을 圖謀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中核인 「價格」과 「賃金」을 계속 嚴格한 統制下에 둠으로서 「市場要因」을 배제한데 基因하는 것이다. 蘇聯은 지난 '66年度에 約 700個의 「示範企業」을 選定하여 利潤制度方式을 試驗하였는데 이들 示範企業體의 利潤이 年間 25%인데 反하여, 여타의 企業은 平均 10% 内外였고,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家族單位의 營農이 集團農場方式보다 約 6倍의 生産性を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改革過程에서 蘇聯이 과감한 價格體系의 變化를 試圖하였더라면 經濟政策은 成功裡에 進行되었을지도, 모른다. 即. 國家의 嚴格한 計劃下에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온 配給組織은 彈

力性있는 企業運營에 対応한 組織으로서 바꾸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事實은 곧 共產主義經濟自體의 崩壞를 뜻하는 만큼, 移行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試行錯誤를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利潤制度를 基礎로 한 蘇聯의 「코시긴」經濟改革은 지난 '69年度末까지 全體工業의 生産單位 約4分の3이 3萬6千個의 工場을 새로운 形態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들 業體는 總工業生産에서 83.6%, 利潤總額의 0.1%를 차지하여 多小의 效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事實이 바로 「브레즈네프」가 指摘한 計劃上の 過誤, 即 「經濟計劃」과 實際의 「經濟循環」이 調和를 이루지 못한 데에 그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가 이같은 問題點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미 失敗한 經濟改革을 再改革하는데 따른 不可避한 經濟的 마찰이다.

### 3) 「코시긴」經濟改革과 새로운 價格體系의 定立

1965年度에 단행한 「코시긴」經濟改革의 成敗如否를 決定하는 要因은 새로운 「價格體系」의 形式에 集約되고 있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經濟制度下에서의 價格形式의 合理的 規範을 어떻게 設定하느냐 하는 問題를 論爭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理論經濟學者나 政策立案者의 大部分은 價格은 實質生産「코스트」(Cost)를 反映하는 것이어야 하며 需要의 變動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傳統的 「맑스」主義立場을 고집하여 왔다. 이러한 —



派가 關心을 集中한 것은 價格算定機構, 企業의 利潤性을 愛워싼 諸問題, 價格의 技術革新意慾에 미치는 刺戟, 販買稅 및 價格에 包含되는 「마진」을 통해 이루어 지는 國民所得再分配의 問題等이다.

反面에 少數派에 屬하는 「네르치노프」 「칸토로비치」等 敎理經濟學者들은 西方側의 變動價格論을 漸次 받아 드리려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價格이란 相對的 不足狀態를 나타내는 指標의 役割을 하여 本質的으로 財貨의 需給關係를 反映하는 指標로 生覺하고 있다. 그러나 工業의 價格體系를 어떻게 改革할것인 가에 대해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①傳統主義派, ②剩餘生産物加算派 ③理想 Cost 派로 大別된다.

먼저 傳統主義派는 工業部門價格構成의 傳統的 方式에 基本路線을 支持하고 있다. 價格을 經濟管理의 手段으로 利用할 경우에는 企業體의 效率的인 活動을 推進하고 持定한 事物의 需要供給要因을 確認하고 特定商品의 消費를 促進 또는 減限시키기 위해 大部分의 경우 價值로 부터의 遊離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傳統主義派는 生産財價格 全體의 水準을 大幅的으로 引上하여 剩餘生産物을 擴大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代身 그들은 缺損이나 過剩利潤을 排除하고 代替品間의 적정한 價格關係를 確立하고 新型機械의 導入을 促進하는 等を 위해 生産財價格構造의 部分的인 調整을 主張하고 있다.

다음 두번째로, 剩餘生産物加算派는 生産 Cost( $C + V$ )에 一定比率의 剩餘生産物( $m$ ) + 加算을 첨가, 價格을 價值 (即,  $C + U + m$ )에

同等하게 함으로서 價值基準의 價格策定을 提唱하고 있다. 세 번째로, 理想「코스트」派는 價格은 相對的 缺乏을 反映해야 하며 資本料, 地代를 包含한 效率價格을 間接적으로 提唱하고 있다. 이같은 價格은 理論적으로 投入과 産出( Input-Output ),<sup>2)</sup> 其他 数学的 計劃技術에 依한 「最適計劃」의 편성에서 얻어지는 「Shadow Price」와 같게 된다. 그럼으로 「最適計劃」은 政治指導가 設定하는 一聯의 最終産出目標를 可能한 限 效率적으로 達成하게 한다.

끝으로 理想 Cost 派는 計劃과 「Shadow Price」等 複雜한 經濟關係에 對해 詳細한 情報의 缺如, 또한 그것이 있다 해도 情報를 處理하는데 必要한 資料處理, 計算設備의 缺如 등으로 現在로서는 編成할수 없음을 認定한다. 그러나 不完全하기는 하나 最適計劃의 理想的 價格特徵의 一部를 導入하여 現行 價格体制의 改善을 考慮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價格体系의 論爭가운데 「코시킨」의 價格改革의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總産出量보다 売上과 利潤率을 企業成績의 主要指針으로 設定하고
- ② 各生産單位는 産出과 投入의 構成을 決定함에 있어 前보다 多小 큰 自由를 얻는다.
- ③ 資本의 浪費를 防止하기 위하여 企業은 固定資本(C)과 流動資本(V)에 對해 利子를 支払할 것이며, 그利潤性은 「코스트」보다도 資本과의 關聯에 있어 算定되고 新規投資는 大部分이 財政給付가 아니고 銀行融資에 依하여 調達되어야 한다.

註 1) New Direction of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ies], Washington, D.C., 1966.



④生産單位는 그利潤에서 投資 및 勞動者와 經營者 雙方에 「보너스」(Bonus) 支払을 위해 보다 큰 部分을 留保한다.

⑤價格은 品質, 耐久性 및 消費者가 얻는 經濟的 效果를 考慮해야 되며, 「社會的 必要勞動」Cost를 커버하고 正常操業하는 各企業體의 利潤爭取를 確保할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農産物 調達價格에 對한 主要批判은 相異한 製品의 價格과 「코스트」와의 關係, 價格의 地域隔差에 對한 缺陷과 價格의 合理的인 專門化를 促進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點等이다.

첫째의 批判은 調達價格의 水準과 體系는 多같이 生産「코스트」를 적절히 考慮됨이 없이 策定되어 왔다는 點이다. 그結果, 集團農場의 産出을 增大시키기 위한 刺戟이 缺如되었으며, 集團農場의 農夫들은 各者의 個人農場에 努力을 集中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는 點等이다.

둘째의 批判은 個人作物의 價格은 有利한 自然條件에서 發生하는 地代의 差異를 좁히기 위해 地域的 隔差를 두고 있다. 그러나 價格의 差異는 相異한 地域에 있어서의 「코스트」差異만큼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改革案은

①價格을 「平均生産量」(Average Cost)보다 「限界生産量」(Marginal Cost)에 依하여 決定하고

②地域의 境界를 設定하고 相異한 地代를 받기 위하여 價格差以外의 手段을 使用하여 收穫의 變動에 따라 價格을 變更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小売價格策定에 있어서는 이제껏 價格은 需要와 市場을 充

분히 檢討하지 않고 決定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對한 改革案으로서 需要를 면밀히 檢討하고 「價格의 彈力性」 (Price Elasticity) 를 增大하며, 價格의 決定을 더욱 非集中化한다고 되어 있다.

#### 4) 價格體系의 展望

이제껏 「코시긴」의 經濟改革과 그成敗의 核을 이루고 있는 價格條件에 關하여 檢討하였는데, 蘇聯經濟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에 있어 中央計劃當局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貨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徐徐히 移行해 감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 政策指導者들은 漸次 「價格機能」 (Price Mechanism) 에 큰 注意를 集中하게 되었다.

1956年부터 始作한 이같은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 價格制度에 많은 缺陷을 暴露했으며, 多様な 改革案이 統出하였는데 그內容은 小規模의 技術的 調整案으로부터 始作하여, 基本的 性格의 根本的 變革까지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蘇聯共産黨과 政府의 最高幹部들이 現在 이같은 價格問題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지만, 中央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하여 可用資源을 效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을 確保하기 위해 價格體系의 大幅的 改革에는 매우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主要한 理由는 經濟計劃立案者나 行政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抗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의 政治指導者나 經濟計劃立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消費者의 至上權에 넘겨 주

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彈力的 價格에 產出量을 決定시키고, 資源을 配分하고, 所得을 分配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럼으로 「코시긴」의 新經濟模型에서는 生産單位業績指標, 決定權의 分散等은 分散했음에도 不拘하고, 價格決定은 如前히 集中化되어 改革이 없으며, 今後에도 主로 前述한 「맑스」主義理論에 基礎한 傳統的 類型에 따라 價格體系가 形成될 것이 予想된다. 그結果 蘇聯의 政策立案者들은 蘇聯經濟에 있어서 800 万내지 900 万種類에 達하는 價格을 規定한다는 不可能한 作業에 계속 直面하게 될 것이 予想된다.

이와 같이 蘇聯의 苦惱과 「딜레마」는 資本主義體制의 全面的 導入이 資源配分の 効率化, 나아가서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는 決定的 要因임을 示인하면서도, 또한 그들이 信봉하는 「맑스」理論과 共產主義經濟體制가 이미 時代의 變化에 그 適應性을 상실해 간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있으나, 現存하는 그들의 社會體制가 嚴存하고 있는 限 急進的 變化는 요원한 事實이라 아니 할수 없다.

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헝가리」에서는 이미 지난 '50 年代 中半期로부터 經濟學者들간에 經濟改革의 必要性이 討議되었으나, 市場機能의 導入을 核心으로 한 改革案은 1963 年에 「카다르」政府의 承認을 받아서 1965 年에 와서 實施하게 되었다. 이 改革에 따르면 1968 年까지 企業의 計劃과 經營에 關한 大幅的인 自立性을 賦与하기 위해서 官僚的 統制機

能을 廢止하고, 生産計劃에 市場의 需要를 反映시키며, 賃金과 價格 決定에 伸縮性을 賦与하는 措置等을 取하게 되었다.

「헝가리」政府는 이같은 改革案을 實施하기 위하여 1967年에 社會主義企業憲章等 몇가지 主要法令을 制定하였는데 이같은 法令에 따라 企業은 生産計劃의 作成, 企業內 作業組織과 給与規制의 制定과 함께 政府의 活動을 長期計劃의 作成과 새로운 企業의 設立, 그리고 이같은 企業에 資金代与等に 限定해서 企業의 經營的 活動에 直接介入하지 않고, 企業長의 權限擴大를 通해서 市場機能을 導入하려는 經濟改革을 도모하였으나 「헝가리」經濟改革의 成功与否를 判斷하기는 現在로서는 아직 時期尙 무이지만, 東歐諸國中 分權的 經濟改革을 꾸준히 推進해 오고 있는 唯一한 國家로서 相當한 成果를 건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체코스로바키아」는 1960年代에 들어 오면서 經濟의 沈滯를 타개하기 위하여 推進되기 始作하였다. '60年代에 들어 오면서 체코는, 東獨과 마찬가지로 經濟成長의 停滯, 消費財의 不足,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等 여러가지 經濟的 어려움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같은 事態에 對한 國民의 不滿은 蘇聯式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에 對한 反撥로 나타났다. 따라서 '64年 當時의 「노보트니」政權은 이러한 事情을 背景으로 해서 企業規制를 一部 緩和함과 同時에 包括적인 經濟改革案을 作成, 1965年에 新經濟體制의 名稱으로 承認하였는데, 이와같은 新經濟體制는 改革派의 主導인 「오타·시크」(Ota sik)가 中心이 되어 作成되었고. 그主

要内容은 数量指標의 廢止, 市場價格의 採用等を 通하여 企業의 獨立性和 市場關係의 導入을 大幅的으로 容認한 點에서 相當히 急進的이었다. 할수 있으나, 1968年 8月 「와르샤와」條約軍의 「체코」 侵攻으로 모든 經濟改革은 일단 沈滯狀態에 빠졌으나, 近年에 와서 이같은 經濟改革案의 主要性이 다시 論議되고 있다는 點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라 아니 할수 없다.

다. 「루마니아」 「폴란드」

「루마니아」는 1963年 都売價格의 改革, 1968년에는 銀行, 信用制度의 改革等이 實施되었으나 比較的 그들 計劃經濟體制를 維持하는 範圍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經濟改革은 蘇聯, 東獨, 「폴란드」型의 保守的 分權化路線을 벗어 나지 못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經濟發展이 西方側과의 貿易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的 後進性和 指導層의 集權的 性向 때문에 經濟改革이 他東歐諸國에 比하여 뒤떨어 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다만 西方諸國과 貿易에 對한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對外貿易面에서의 制度의 改革은 相當한 進前을 보이고 있는데, 1968年에 「外國貿易銀行」을 設立하여 '外換의 管理와 信用供與, 外國銀行과의 金融協定締結等 業務를 獨自的으로 担当하게 했고, 1969년에는 閣僚會議 622 號를 公布 外國貿易省의 權限을 大幅的으로 企業에 移讓하였으며, 1971년에는 對外貿易基本法을 制定, 公布해서 貿易活動과 生産企業들에 對外貿易에 對한 各種 裁量權을 賦與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改革主義者들의 主張에 따르면 集權的 計劃經濟는 個人의 自發性과 創意性이 缺如되었다는 認識下에서 經濟成長의 停滯下에서 政治的 自由化의 움직임에 呼應하여 일찍부터 經濟改革의 主張이 活潑히 展開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改革論者들의 壓力에 따라서 利潤動機의 機能을 擴大시키기 위해서 賃金 및 價格을 生計費 및 生産費의 變化에 対応해서 變化시키는 「準市場關係」(Quasi-Market Relation)을 導入하게 되었는데, 「고몰카」의 經濟評議會設立을 위해서 1958년에는 包括적인 改革案을 提案한 바 있다. 그內容은 企業의 獨立性을 確立하고 그 前段階로서 準市場關係를 導入함으로써 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分權的 經濟로의 轉換을 試圖하였고, 이러한 情勢를 背景으로 하여 1965 - '66년에는 分權化改革의 路線의 「폴란드」政府의 公認된 政策으로 登場하였으나 「폴란드」共産黨의 指導層은 經濟改革의 미온적인 保守派로 構成되어 있었기 때문에 經濟改革은 더 이상의 積極적인 進前을 볼수 없었는데 價格統制權을 中央當局이 끝까지 保有하려는 態度라든가 「勞働者評議會」나 「工業트러스트」에 對해서 自立的인 權限을 거의 賦與하지 않고 있는 點等을 들수 있다.

라. 「불가리아」, 東獨

「불가리아」의 經濟改革은 1963년에 約50個의 企業에 對해서, 1965년에 輕工業, 食品加工業 및 機械工業을 包含한 主要企業의 約30%에 적용되었는데 當時企業은 利潤指標와 어느정도의 利潤處



分權을 부여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65년에 들어와 「불가리아」政府는 企業의 獨立性和 市場關係의 導入을 核心으로 하는 소위 「체코」, 「헝가리」型 分權化改革으로 移行할것을 承認하였고, 이에 따라 1967년에는 物的 刺戟의 增大, 企業内部資金, 또는 銀行貸付에 依한 投資政策의 強化 및 銀行制度의 改革을 斷行하였으며 '68年度에는 都売價格과 輸入價格에 對한 改革을 斷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체코」나 「헝가리」가 스스로 理論的 討議를 거친후 經濟改革에 着手했던 것과는 對照적으로 「불가리아」의 經濟改革은 단순히 蘇聯의 分權化改革을 추종한 것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으며, 中央当局에 依한 統制機構가 嚴存한 뿐 아니라 諸般改革의 實効性이 크게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東獨의 경우,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經濟成長率의 急激한 低下가 直接的인 契機가 되어서 改革에 着手하였으나 公式적으로 1963年 新經濟計劃 經營體系를 위한 指針이 發表됨으로서 始作되었는데 그 內容은 價格決定權을 中央当局에 留保시킨다는 條件으로 生産計劃에 關한 主要決定權을 各工業「트러스트」에 委任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東獨의 經濟改革의 特徵은 價格決定權을 中央当局이 保留하고 있을뿐 아니라 經濟單位의 獨立性이 工業「트러스트」의 水準에 達하고 下部企業單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마. 「유고슬라비아」

「유고」는 1950년에 勞動者集團에 依한 政府企業管理法을 制定해

서 모든 企業을 「労働者評議會」의 管理下에 두었고, 1951년에는 國民經濟의 計劃的 運營法을 制定해서 企業이 自體의 生産, 雇傭計劃을 作成하여, 利潤의 一部를 自由롭게 分配하는 權限을 부여 하였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유고」의 經濟改革은 1948年, 蘇聯의 經濟援助가 中斷됨으로서 그契機가 마련 되었는데 1950年 「Tito」는 蘇聯型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拒否하고 企業의 自立性과 市場機能의 導入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改革案을 宣言하기 에 이르렀다. 即, 1965年에 斷行된 改革은 「유고」經濟의 市場機能을 擴大시키는데 必要한 몇가지 急進的인 措置를 包含하고 있다.

첫째로, 投資의 分離를 들수 있는데 企業의 投資計劃을 政府의 投資計劃에서 分離하고 投資資金의 供給을 企業과 銀行에 委任하게 되었다. 그結果 政府財政에 依한 投資資金의 比率은 激減하고 한편 經濟效率이 낮은 企業에 對한 政府補助金이 크게 減少되어 企業間의 競爭을 한층 促進하게 되었다.

둘째로, 政府의 價格統制權을 大幅的으로 縮少하고 그對象을 基礎的인 必須品에 限定시켰다. 1964年에 工業生産物의 64%가 이같은 統制의 對象이었으나 「인프레」 등의 영향으로 1965年末에는 同對象品目이 90%로 擴大되는等 기복은 있었으나 1965年末에는 그것이 52%로, 또한 '68년에는 44%로 低下하였고 現在에도 이水準에 머물러 있다.

이와같이 「유고」는 1965年의 經濟改革을 高비로 完全히 中央集



權的 計劃經濟體制와 訣別함과 同時에 여타 東歐諸國에 훨씬 앞서 市場機能을 中心으로 한 社會主義體制를 確立하였는데 그 特徵은 投資의 分權化에 따라서 經濟計劃의 機能은 命令的인 體制로 부터 誘導的인 體制로 變化하였다. 따라서 政府計劃의 機能은 經濟發展의 豫測, 社會的 利益과 私的인 利益의 調整을 위한 指針等에 限定되었고 投資資金의 大部分이 政府로 부터 企業과 銀行으로 移轉된 結果, 그需給이 市場關係에 依해서 規制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外國貿易의 自由化가 促進됨으로서 「유고」의 經濟가 開放經濟體制로 轉換되기에 이르렀다. 即, 貿易의 自由化는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때문에 國內市場의 自由化 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었는데, 1965年의 經濟改革은 平価切下等을 通하여 이같은 貿易의 自由化를 한층더 促進하려는 措置였다고 볼수 있다.

#### 바. 經濟改革의 共通點과 相異點

以上에서 本章을 通하여 現在 東歐諸國에서 進行되어 왔거나 或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經濟改革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分權化 改革으로 把握하였고, 그 經濟的 意味가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方式에서 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方式으로의 政策的 轉換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은 國家에 따라 相異한 點과 共通된 點을 指摘할 수 있는데, 主要한 共通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各企業은 그들의 生産 및 財政規模, 그리고 그構成과 關

聯하여 自体計劃을 수립하거나 執行하는 過程에서 보다 많은 自律性을 賦与받고 있다. 그리고 各生産單位는 그들의 生産物供給者 (都売商과 小売商)를 選定함에 있어, 그리고 請負業者나 再請負業者 (生産企業體)를 選定함에 있어 더욱 많은 選擇의 機會를 갖게 되며 企業財政의 獨立性은 企業財政의 相當한 部分을 過去보다 더욱 많이 留保할수 있도록 許用하고 있는것이 特徵이다.

둘째로, 國家計劃委員會 財務省, 外國貿易省等 最高政策調整機關들은 國營企業이 計劃目標를 達成하도록 引導하는데 財政的 誘因 (Financial Inducement)을 活用하며, 目標設定, 原料割當量, 資本, 投資 및 輸入의 範圍等を 限定하여 준다.

셋째, 國立銀行이나 專門的 投資銀行, 貿易銀行等은 그들이 어느곳에서 獨立的인 存在로 活動하는 企業運轉資本의 큰 部分을 點하는 短期貸出이나 企業長期投資의 大部分을 長期貸出의 期間延長을 通하여 企業에 더욱 큰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으며 이들 銀行은 企業의 貸付償還能力에 따라 長期的 信用供與의 割當에 差別을 두고 있다. 그리고 工業分野內에 모든 分業은 一定한 範圍內의 工業生産에 對한 經營과 發展에 對하여 全적인 責任을 지는 聯合會나 部門別 幹部會 (Sectoral Directorates)에 編成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끝으로 生産財의 價格은 加급적 「社會的 所要費用」 (Socially Necessary Cost)에 一致되도록 修正되고 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等を 包含한 東歐의 몇나라에서는 비록 價格形成에 對한

詳細한 情報가 欠如되어 있지만 「社会的 要素費用」을 더욱 伸縮性 있게 (例를 들면 資本費用과 賃賃料를 包含하여) 解釋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價格을 原價의 變動과 需要條件에 一致하도록 더욱 자주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은 어느나라에서나 認定되어 있으나 이러한 考慮에서 導出된 現實的인 結論은 國別로 相異하다.

한편 經濟改革의 主要한 相異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中央計劃當局이나 各省等 機關에서 企業에 내려지는 強制的인 指令의 數는 國別로 相異하다. 따라서 導入된 經濟改革의 程度가 가장 徹底한 「체코」나 「헝가리」에서는 비록 各年度의 經濟計劃이 어떤 部門에 대해서는 物量目標로 表示된다거나 稀少한 資源이 如前히 配給品目에 包含되어 있다고는 하자만 可能한 限 強制的인 指令은 廢止될 것이 豫測된다. 적어도 「체코」나 「헝가리」에 있어서 貨金은 中央計劃當局에 依해서 直接 決定되지 않는 것이 豫想되고 있다. 이같은 事實은 貨金이 累進稅에 間接적으로 影響을 받기 때문에 貨金의 形態로 利益이 過多하게 支出되는 일은 抑制될 것이기 때문이다. 現在 東歐의 여타 諸國과 蘇聯에서는 貨金이 아직도 直接統制의 對象이 되고 있다.

둘째 現在 「체코」와 「헝가리」 두나라에서만 이 企業이나 聯合會가 標準化된 生産財의 產出量에 實質的인 部分에 對하여 價格策定을 할 수 있도록 許容될 뿐이다. 總売出에서 自由價格 (Free Price) 이 許容된 生産財가 占하는 比重이 「체코」 보다 더욱

큰 「헝가리」의 경우 国内 生産原資材販売高의 28%, 加工製品 85%가 直接價格統制의 対象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經營者에 對한 償與金 (Bonuses) 은 「폴란드」와 東獨의 경우 利益計劃 (Profit Plan) 의 達成에, 蘇聯에서는 利益 및 販賣計劃에, 「체코」에서는 附加價値에 해당되는 總所得에, 그리고 「불가리아」에서는 勞動生産性의 增加나 利益에 依하여 決定되고 「헝가리」에서는 計劃에 關係없이 總利益에 依하여 決定되고 있다. 다만 「루마니아」에서도 償與金이 計劃達成과 關聯되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것이 利益과 關聯이 있는지 或은 다른 指標 (Indicator) 에 依하여 決定되는지는 아직 確實하지 않다.

세째, 投資의 決定機能이 分散되는 程度나 投資를 施行하고 投資財源을 自己資本이나 銀行貸付等으로 調達하는 정도는 國別로 매우 相異하다. 새로운 工場의 建設을 위하여 可能한 最大의 財源을 動員하는데 아직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여타의 東歐低開發國에 比較하면 「체코」當局은 投資政策에 關하여 個個企業에 더욱 많은 權限을 부여할것 같기는 하지만 投資에 對한 統制가 急激히 解除되고 「인프레」壓力이 放置되었던 1950 年代末期에 不幸한 經驗을 잊지 않고 있는 「체코」는 이에 對하여 相當히 保守的인 政策을 扞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네째, 現在 「헝가리」를 包含하는 몇몇 諸國의 經濟改革에서는 特定輸出入에 對한 意思決定을 企業에 委任하도록 要求하고 있으며 企業의 權利로 外貨所得 (Foreign Currency Earning) 의 一部를

保有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企業의 輸出이 計劃을 超過하였을때 限해서 外貨의 追加割当이 可能하다. 近年에 와서 交換可能外貨 (Convertible Foreign Currency) 의 不足에 큰 苦痛을 받고 있는 「체코」의 경우 이에 관한 規定은 그리 自由롭지 못한 것이 特徵이다.

끝으로, 蘇聯, 「불가리아」, 東獨에서는 經濟改革이 試驗企業 (Experimenting Enterprise) 에서 始作되어 斷片的으로 導入되었고 漸進的으로 産業生産의 大部分을 包含하도록 擴大되어 갔으나 여타 諸國에서는 産業内の 全企業에 걸쳐 同時的으로 施行된 것이 特徵이다.

以上으로 現在 東歐에서 進行中인 經濟改革의 共通點과 相異點을 各各 分離해서 檢討하여 보았는데 根本적으로 東歐의 經濟改革이 그 性格에 있어서 開放的 (Open-ended) 이고, 經驗에 비추어 계속적인 修正을 해나가고 있음으로 共通點과 相異點이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되리라고는 豫測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코」와 「헝가리」의 共産黨指導者들이 이제껏 여타의 東歐諸國보다 더욱 철저한 制度的 改革을 推進하여 왔음은 의심할 바 없다. 即 兩國에 있어 過去體制와의 가장 현격한 差異는 相當數에 達하는 生産財의 價格策定에 自律性을 賦與한 것과 計劃達成에 따라 經營上의 誘因 (Managerial Incentive) 을 嚴格히 差別한다는 것이 있을것 같다. 兩國의 黨幹部와 經營學者들 中에는 아직도 이러한 改革의 內容에 對하여 주저하는 바도 있으나 收益性을

基準으로 하는 意思決定이 비록 上部에서 承認된 計劃으로 부터 약간의 蹉跌을 招來한다 하더라도 그 妥當性を 認定하는 時期가 머지않아 올것이 豫想된다.

体系的인 改革을 断行하는데 있어서는 「루마니아」가 가장 느렸으며 改革의 強度로 보아 가장 낮은 한쪽끝을 차지하고 있으며, 1967年 後半期에 經濟改革을 推進하기로 決定을 내렸을 때에도 그 改革案을 設計함에 있어서 가장 慎重하였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改革의 兩極端 「체코」 「헝가리」와 「루마니아」 사이에 놓여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推進된 經濟改革의 強度에 依해서 그 等級을 分類한다면 東獨과 「불가리아」가 蘇聯과 「폴란드」보다 다소 앞서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는 果然 前述한 經濟的 改革이 그들의 政治的 社会的 改革과 無關하게 進行될수 있으며 民主主義가 保障되지 못한 經濟改革이 果然 合理的으로 그 機能을 發揮할수 있을까 하는 問題다. 더욱이 東歐諸國의 改革의 實驗이 恒常 蘇聯의 対応을 意識하면서 行하여 진다면, 結局 그것은 蘇聯自體의 民主化없이는 極히 어려운 作業이라는 展望을 내리지 않을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經濟體系가 期待되는 成果를 낼수 있으려면 既存權力 體制의 相當한 變化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認識이다.



## 第4章 東·西貿易의 擴大와 兩體制

### 의 接近可能性 展望

1954년에 倉設된 Comecon의 主要目標의 하나는 東歐圈內의 域內分業을 促進시킴으로서 域內貿易을 擴大하고 그結果 西方側으로 부터 經濟的 獨立을 確固히 하려는 것이 었다. 그러나 Comecon에 加入하지 못한 「유고스라비아」는 勿論이러니와 「헝가리」「불가리아」, 「루마니아」等 諸國도 西方諸國과 의 貿易擴大에 깊은 關心을 가져 왔다. 왜냐하면 對西方貿易의 擴大는 Comecon 域內分業에만 依存하는 것 보다 資源을 훨씬 節約할수 있고 「規模의 經濟」(Economics of Scale)를 可能하게 할 뿐 아니라 技術水準을 向上시켜 그들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리 라고 生覺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央集權的共産主義 經濟體制는 對外貿易擴大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서 國內 價格構造의 不合理性이라든가 恣意的인 外換制度等, 制度上의 障害와 適切한 輸出商品의 不足等 여러가지 問題點은 東歐諸國의 對西方貿易을 가로 막는 커다란 問題點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이같은 問題點은 必然的으로 東歐諸國이 自身의 貿易制度에 對한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였고 나아가서 經濟改革의 必要性까지 提起시킨 主要한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東·西貿易의 必要性은 東歐諸國의 經濟改革과 함께 2次世界大戰以後 이제껏 철저하게 「Autarky」 體制를 固守하여 왔던 蘇聯과 擴大된 東歐圈內의 새로운 工業化와 함께 世界經濟의



또 하나의 中心圈을 形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構造變化의 結果, 長期開發計劃에 必要한 西方諸國의 資本財와 施設財에 對한 東歐諸國의 購買意慾이 크게 增加하였으며 東歐側도 世界市場에 對해 廣範圍한 供給能力을 갖기 始作 하였다.

한편 同一한 時期에 西方諸國의 經濟가 長期的으로 効率的이고 急進的인 經濟 復興을 實現함으로써 兩陣營은 自體內에서의 相互對立과 斷絶을 止揚하고 自体結束을 더욱 強化시켰는데 地域間 거리가 漸次 좁아지고 또한 相互依存이 深化되고 있는 現代世界에 있어서 이러한 結果는 兩陣營에 다같이 有利했기 때문에 보다 強力한 結果에 對한 關心이 더욱 增大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東歐諸國은 그들의 對外經濟關係를 活潑하게 展開시켜 나갔는데 1950年代 中半부터는 蘇聯까지도 소위 共存을 志向하고 門戶를 開放하는 第2段階로 進入하게 되었다. 이段階가 바로 東·西關係의 새로운 展開를 意味하는 解氷期의 始初였다.

이러한 變心은 마침내 東·西間의 冷戰에 終末을 씬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兩陣營間의 極限的인 狀況은 경우에 따라서 緩和되거나 또는 完全히 사라져 버렸는데 이같은 現象이 바로 「후르시초프」 時代와 同一하게 認定할수 있는 이른바 共存時代인 것이며, 經濟體制內部的 改革은 多方面에 걸쳐 積極적으로 擴大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30年間的 東·西間의 經濟交流展開過程에서 注目할만한 것은 고립상태로 부터 아직도 進行中에 있는 集約的이고 長期的인 協力の 段階인 開放과 膨脹의 局面으로 轉換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轉換程度와 背景에서 볼때 東·西關係는 그展開過程에 있어서 完全히 새로운 時代를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向後 東·西關係는 長期的인 안목으로 보아 相互間의 獨立性을 계속 유지하면서 統合的인 양상을 띠울 것으로 特徵지워지고 있으며, '70年代 後半에도 東·西間의 協力은 계속 增大될것이 予想되며, 이러한 傾向은 '80年代에 있어서도 持續될 것이 予想된다. 그主要한 理由로서는 첫째, 東·西經濟統合過程이 계속 進前됨에 따라서 EEC와 Comecon 과의 關係는 主要한 意味를 지니게 되는데, EEC는 처음부터 東歐諸國 特히 蘇聯의 참여를 엄격하게 制限하였다는 事實을 더以上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EEC는 東·西關係의 完화에 따라 世界貿易의 門戶를 더욱 開放하게끔 되었으며 이미 1974年 11月 Comecon 國家들과 接觸할 用意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後 「Brussel」에서 열린 合同關係會議는 東歐의 提案, 特히 앞으로 맺을 可能性이 있는 協定の 形成과 內容을 檢討하였다.

그러나 重要한 것은, 契約締結如否에 關係없이 形式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實質的인 內容에 있어서 相互條件과 理解關係가 一致할수 있는 解決策을 発見할수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러한 問題는 Comecon 諸國과의 世界貿易 (世界貿易의 比重은 Comecon 11% EEC 40%)에서 뿐만 아니라 内部構造, 經濟「메카니즘」, 組織의 機能, 統合原則等 目標設定에 있어서 EEC와는 커다란 格차가 있다는 點에서 提起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EC의 特定國家와 이미 締結된 相互協定을 個別的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EEC全體가 Comecon 과의

關係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미묘한 問題가 發生하고 있으며, Comecon 側에서도 이와같은 問題가 있는 限 貿易政策에 對한 權限이 各國의 領域을 넘어 버릴수 있는 問題가 있는 것이며 差別化의 禁止와 特惠國優待條項에서 兩Bloc 間에 相異한 經濟制度를 充分히 감안하지 못한 貿易政策도 問題가 있다. 또한 東歐圈에서 價格, 關稅, 稅率等은 特別히 西歐에 比해 또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交易을 위한 包括的인 雙務契約關係와 긴밀한 科學의 協力을 包含하는 産業協力과 東·西銀行部門間的 去來分野를 들수 있다. 이같은 東西諸國의 協力多變化정후는 國際經濟機構에서 東歐諸國의 活動이 漸次 活氣를 띠우고 있는 事實에서도 찾아 볼수 있는데 例를 들면, 모든 東歐圈, 特히 蘇聯, 「불가리아」, 東獨까지도 GATT의 正會員國으로 加入한 바 있으며, 「루마니아」는 現在와 IBRD에 加入하고 있으며, EEC와 直接 協商을 進行시키고 있다. 또한 EEC와 「루마니아」 사이에는 1976年 11月, 「織物類交易에 關한 協定」(Trussel)에서 締結되었다. 「유고」는 同年 東歐共產圈國家로서는 唯一하게 Europe 投資銀行으로부터 長期信用을 共與 받았다.

이와 같이 東歐諸國이 漸次, 世界經濟의 흐름과 密接한 關係를 形成함에 따라 이제는 世界全體의 經濟흐름으로 부터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特히 앞으로는 現在까지의 對外貿易의 役割이 그規模와 強度面에서 變化함에 따라 東歐諸國의 産業構造 또한 變化할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世界經濟안에 더 Comecon 國家들 間에 보다 強化된 統合을 促進시키는 것은 西方先進國들의 利害關係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東歐諸國의 새로운 經濟計劃이나 comecon 國家全體의 綜合計劃에서 보면 東歐諸國은 對外貿易 特히 東-西間의 交易關係의 增進을 그들의 經濟成長을 보다 促進시킬수 있는 가장 主要한 要因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1972年 蘇聯共産黨 第25次大會에서 「코시긴」首相은 「輸出市場을 더욱 開拓해야 하며 輸入은 國家經濟計劃을 達成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인 經濟戰略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蘇聯의 경우 9次5個年計劃(1971-75年)은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促進시키고 生産手段의 質的 向上과 勞動生産性的 向上을 위하여 經營과 經濟組織의 改革 및 철저한 合理化를 強調한 24次 黨大會 提示事項에 따라 樹立된 것이었다.

以上과 같은 상황에서 볼때 蘇聯과 東歐諸國은 集約的인 國內成長을 指向함에도 不拘하고 今後 東·西間의 經濟協力은 不可避하게 強化될 것이 予測되고 있으며, 75年度와 같은 大幅的인 經濟成長率을 다시 記錄할수는 없겠으나 보다 東·西協력이 活潑해지면 高度成長의 機會는 계속 到來될 것이 予想된다. 더욱이 75年度의 경우 東歐諸國의 對外經濟關係는 그範圍가 顯著하게 增大되었으며 幅과 深度에 있어서도 커다란 成果를 건우었다. 「스타비노크」(Stavinok 教授의 見解에 依하면 東·西交易의 潛在的인 發展可能性을 充分히 利用하기 위하여서는 Comecon 國家들의 生産構造가 高度化되고 對外貿易의 地域構造가 特殊市場을 目標로 하도록 貿易과 生産構造가 根本的으로 改善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있다.

이같은 事實은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이 次期計劃期間中 對外貿易量을 1980년까지 30-35%로 增加시키도록 目標을 策定한 點에서 明白하며, 産業生産能力을 提高시켜서 輸出을 더욱 增大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수 있다.

「헝가리」는 5次 5個年計劃을 遂行함에 있어서 世界市場與件이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1980년까지 國民所得은 30%以上, 工業生産은 30-35%나 增大시킬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데, 「헝가리」는 商品의 國際競争能力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76年 1月부터 實施한 投資制度를 通하여 各産業部門을 각기 다르게 發展시켜야만 했는데 「부다베스트」에서는 이를 現實的이며 效率的인 經濟政策이라고 일컫고 있다.

「불가리아」도 自國의 目標을 設定함에 있어서 이같은 見解와 要講에 따르고 있는데 第 7次 5個年計劃의 目標을 볼것 같으면 1990년까지 國際分業에 広範圍하게 참여 함으로서 對外貿易을 發展시켜나가도록 되어있는데 輸出入構造의 大幅的인 改善과 그效率性을 向上시키고 加工度가 높은 工業品의 輸出比重을 높이도록 計劃되어 있는 點을 들수 있다.

끝으로 東·西經濟協力關係는 政治的인 關係가 一時的이나마 高潮된 「헬싱키」歐州安保協議會 (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合意事項에서 特別히 強調되었다. 그合意內容을 보면 第2項에서 広範圍하게 交易, 産業, 技術等に 있어서의 經濟問題들을 取級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中에서 特히 産業協力에 對

해서 強調하고 있는데 産業協力は 때때로 聯関相對國의 經濟的 技術的인 보상가능성을 더욱 利用하는 手段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問題를 위해서 潜在力이 있는 相對國家와 緊密한 接觸을 容易하게 하고 보다 신속하게 情報를 交換하려고 努力하고 있는데 競争과 「마케팅」의 許容은 勿論, 市場의 基盤構築顧客에 對한 「서비스」의 強化, 勞動條件의 改善等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東·西兩陣營間에 効力を 미치는 原則과 協力規定으로 어떤 새로운 國際法을 制定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署名國의 政治意思와 「헬싱키」精神의 具現에 달려 있는데 다시 말하면 實際로 開放되어 있는 機會를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蘇聯 共産黨書記長인 「Leonid Brezhnev」는 「헬싱키」會談의 演說에서 앞으로 반드시 緊張緩和가 具體적으로 實現될 것이며 이같은 緊張緩和는 歐州平和를 實際로 安定시키고 確固하게 할 것이라고 強調한 바 있다.

그러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이같은 問題들을 當分間은 失望을 안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EEC와 GATT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行한 여러가지 試圖以後로 「헬싱키」會談은 東·西 貿易과 經濟協力の 深化와 擴大를 가져 오는데 重要한 교량역할을 하여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東·西貿易의 障礙를 根本적으로, 그리고 長期的으로 減小시키고 또한 除去하는데 必要한 普遍的인 方法을 通하여 그 解決策을 찾아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헬싱키」會談에서 비로소 보다 높은



政治的인 次元에서의 東·西經濟協力에 關한 多樣한 生覺이 여러 側面에서 일어나기 始作했다는 事實을 우리는 重要視하게 되며 「Henry Kissinger」長官의 會談演說에서 分明히 밝힌 바와 같이 經濟体制의 相異性은 互惠主義의 原則을 必要로 한다고 公表한 것도 또한 처음이었다.

이같은 協力에 對해 東·西間의 觀心은 마찬가지로인데, 이것은 先進6 個國 經濟頂上會議에서 發表한 1975年 11日의 「탕부이에」 宣言에서도 強調된 바 있는데 11個項에 다음과 같이 明文化되어 있다. 即 우리는 世界經濟成長과 東·西緊張緩和의 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할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秩序있고 結實이 있는 經濟協力關係의 擴大를 期待한다고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볼때 지금까지의 諸般 어려움과 體制上的 差異에도 不拘하고 東·西間의 經濟協력과 結束이 더욱 增進된 事實은 注目할 만한 結果로서 評價해야 하며 이같은 經濟協力關係는 今後 더욱 進前될 것으로 予想된다.